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네 마음을 지키라(잠4:23)

특별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

‘회복’을 주제로 한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 A, CA 90015) 특별부흥회가 지난 8일(금)-10일(주일) 열렸다.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가 강사로 초청됐다.

백동조 목사는 부흥회 마지막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출애굽기21-15)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것에 기다림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기다림은 준비라고 할 수도 있다. 기다림과 준비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회복이 반드시 있다.”고 역설했다.

백 목사는 성회 기간 동안 ●회복의 자리(열왕기하 5:1-14) ●행복하십니까?(마태복음7:20-24) ●놀라운 회복의 복음(사무엘상 16:6-12)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출애굽기 2:1-15)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창 22:16-18)등의 제목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다.

출판기념 감사예배 한기홍목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두란노)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9일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전교실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서 박희민 목사 (나성영락교회 원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21-23)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본문의 다윗 왕은 겸손한 자였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들이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이 땅에서 겸손과 경외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배에 참석한 영 김 집사(연방하원의원39지구 후보)는 축사를 통해 “기도의 사람인 저자의 책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깊이 생각나게 한 귀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도서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은혜한인교회의 은퇴 선교사 선교관 건립에 사용된다.

우리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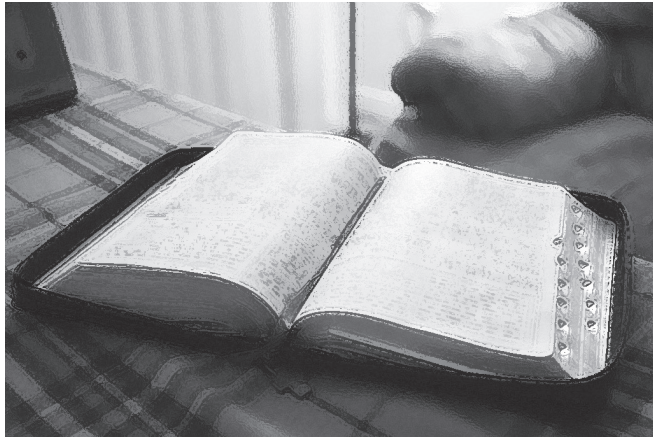
성경은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다. 물질을 지킨다든가 명예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갖아야할 고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6-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는지 주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비워둔 채 있다면 어느새 마귀가 시험을 하고 허망한 생각을 집어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

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순서를 넣으면 미리 겁을 먹고 “제발 저에게는 기도를 시키지 마세요! 기도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안 나올 꺼예요!” 그러면서 두 손을 흔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 봐도 멋있게 기도하라, 장황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비록 서툴고 뜻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우리의 간구가 서툴고 비록 미사여구가 아닐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갖아야할 고귀한 생각은 ‘말씀의 생각’입니다.

‘존 변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

그러므로 시편 1:2절 말씀에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15-17절 말씀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기완 목사-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